

제1주제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검토



- 건양대학교 이 철 성 교수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이철성(건양대학교, 한국사)

※ 서설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은 백제문화와 선비정신으로 요약되어 왔다. 역사적 관점에서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동질성 확인과 이를 통한 정신적 유대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정체성은 자아를 통해 공감하는 것과 타자를 통해 인식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현대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개항기와 일제시대에 겪은 사회변동과 굴절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은 우선 충청남도의 명칭 유래와 행정구역 변천을 우선 살폈다. 이는 근현대(개항~일제)의 변동 속에서 충청남도 지역의 굴절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충청도의 인문 지리적 특성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해 보고, 이어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신을 종합해 보았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충청남도의 종합계획권역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종합계획권역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계획권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감안하여 시군별 공공디자인에 적용될 슬로건 및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제안이다.

1. '충청도'와 '충청남도'의 유래

1) 충청도의 명칭은 고려 시대 처음 등장

2) 충청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조선시대부터

○ 1395년(태조4) : 양주, 광주 관할인 군현은 경기도

공주, 홍주, 충주, 청주 관할의 군현은 충청도로 분리

○ 충청 우도(右道)와 좌도(左道)로 분리 인식

- 이종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

남쪽의 반은 **차령** 남쪽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가깝고, 반은 **차령** 북편에 있어 경기도와 이웃이다. 산천이 평평하고 예쁘며, 서울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에다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이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 호서(제천 의림지 서쪽지방)

- 마한의 중심지(전 직산), 백제의 수도(공주, 부여), 통일신라 중경(충주)

- 고려(충남; 하남도, 충북; 양광도), 조선(기호예학; 회니시비, 호락논쟁)의 중심지

3) 근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충청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일체감 지속

○ 1896년(고종33) 전국 13도로 구획하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눔.

○ 1906년 행정구역 개편

- 전통적으로 큰 읍이었던 공주, 홍주, 천안의 규모가 축소된 반면, 회덕, 면천, 아산의 규모 확대. 대전 성장 예고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 전국 13도 12부, 317군으로 개편. 그 중 기존 충남 37개군을 14개군으로 통폐합.

현재(2014)	1914 행정구역	1896년 행정구역
공주시	공주군	공주군
홍성군	홍성군	홍주군, 결성군, 보령군 일부
보령시	보령군	보령군, 남포군
서천군	서천군	서천군, 한산군, 비인군
서산시	서산군	서산군, 태안군, 해미군
당진시	당진군	당진군, 면천군
예산군	예산군	예산군, 덕산군, 대흥군
아산시	아산군	아산군, 온양군, 신창군
천안시	천안군	천안군, 목천군, 직산군
논산시	논산군	은진군, 연산군, 노성군, 석성군 일부
부여군	부여군	부여군, 임천군, 홍산군, 석성군 일부
청양군	청양군	청양군, 정산군, 홍주군 일부, 부여군 일부
태안군		
금산군	금산군→1963년 충남 복귀	공주부 금산군과 진산군을 전라북도 편입
계룡시	*2003년 도농복합시 설치	
대전	대전군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 일부
세종	연기군	연기군, 전의군, 공주군 일부

4) 근·현대 역사 문화적 정체성 변동 요인

○ 1905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 지역 경제권의 변화 : 대전권, 천안권, 대천권, 청양부여의 내륙권, 서산권으로 분산
공주, 강경, 부강 침체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 도청 이전(공주→대전, 1932년 10월)

○ 1920년 조치원~청주 충북선 개통. 이후 1928년 충주까지 개통

1931년 장항선 : 천안 출발 - 온양-아산-예산-홍성-웅천-장항
→백제의 멸망 단체 관광코스(부여), 온천 개발(온양 1918, 유성 1926)

→193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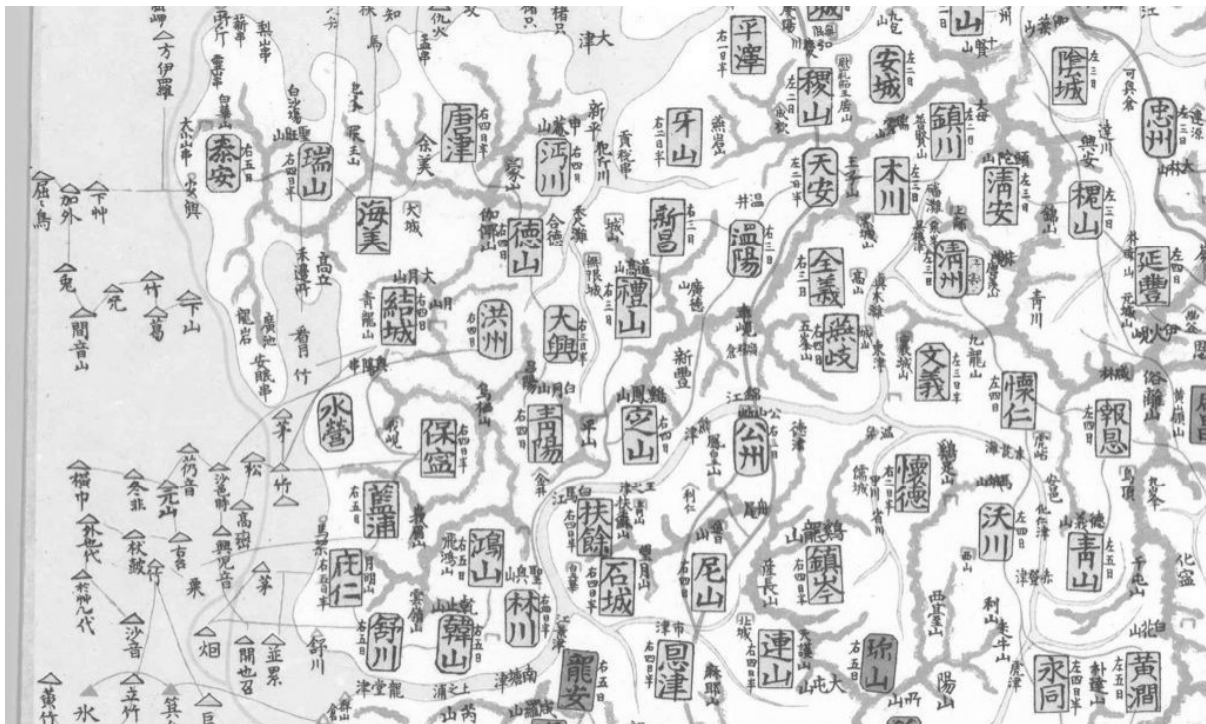
- 대전 : 호남선 분기점, 남선교통의 요충지
- 조치원 : 충북선의 분기점이자 백제의 구도(舊都) 공주가 시작되는 곳
- 천안 : 장항선 철도의 분기점. 온양, 예산(충남제지, 농업학교) 대전(어항) 장항, 군산 연결의 동맥
- 논산 : 조선제일의 석불 1914년 호남선, 1928년 강경-군산 운항하는 기선 개통, 강경이 호남의 수향(水鄕)이라 불림

5) 일제시대 충청남도·충남인에 대한 평가

- 충남 근대화 매우 완고 했다.

- 월남 이상재(서천) “고래로 호서 사람이란 것은 맨 주먹 쥐고 서울에서 머물면서도 겨울이면 달력 한 권 여름이면 부채 한 자루라도 시골집에 내려 보내야 쓸 줄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그런 버릇은 버려야겠다.”
- 민태원(서산, 언론인) “조선 양반의 폐단은 조선 오백년 이래 반향(班鄕)을 자랑하던 충남인에게 더더욱 심할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
- 소작을 붙이지 못하는 불안성
 - 일본인 농장주 이외에 공주 김갑순, 예산의 김성권, 서울의 박흥식 등이 충남의 대지주로 등장
 - 정미소업 및 청주, 된장, 간장 등 양조업 등 발달
-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배출의 못자리
 - 3.1운동(유관순), 1922년 민립대학기성회 조직(한용운이 중앙상무위원)으로 당진, 아산, 예산, 청양, 공주에 지방부 조직, 1927년 신간회 홍성, 공주, 대전, 예산, 서산, 논산 지회. 1926년 6.10만세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때 공주고보, 영명학교, 홍성공업전수학교, 예산공립농업학교, 부여 공립 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2. 조선시대 충청우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도출



1) 공주목

공주목	
소속 군	임천군, 한산군
소속 현	정산, 부여, 석성, 은진, 이산, 연산, 진잠, 회덕, 연기, 전의
현재(충남)	공주,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세종), (대전),

- 인문 지리적 특성 : 금강 문화권(경제 번영) / 계룡산 문화권(사상적 자유)
 - 금강 문화권 : 공주 부여(백마강), 논산(강경강), 회덕(갑천 동쪽 회덕현, 서쪽 유성촌), 금산
 - 계룡산 문화권¹⁾ : 유성(계룡산 동북방), 신도안(계룡산 남쪽), 이산, 석성, 연산, 은진(계룡산 서남방; 하한은 강경나루)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안정성(예학)과 역동성(금강), 고도(古都)의 중심성(백제문화권), 내륙을 있는 경제적 젖줄
 - 논산²⁾, 계룡, 금산 : 예학의 정신³⁾과 경제 번영을 위한 역동성
 - 공주, 부여 : 백제의 고도라는 자부심⁴⁾
 - 계룡 : 계룡산 문화권 속 한국 국방의 수도

2) 홍주목

홍주목	
소속 군	서천군, 면천군, 서산군, 태안군, 대흥군
소속 현	온양, 아산, 신창, 홍산, 덕산, 청양, 남포, 비인, 결성, 보령, 예산, 해미, 당진, (평택)
현재(충남)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청양군

- 인문 지리적 특성 : 내포문화권(오서산⁵⁾, 가야산⁶⁾), 서해문화권(성주산), 아산 공진창⁷⁾, 청양 칠갑산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해양성(경제적 풍요), 포용성(문화의 수입), 진취성(성리학, 천주교 도입, 실학의 발생과 경기지역과의 교류, 학자, 지사, 지식인 배출)
 - 내포문화권(태안, 서산, 홍성, 예산, 당진, 아산)⁸⁾
 - ◇ 예산 : 유공포의 동쪽과 서쪽의 여러 고을에는 모두 장삿배가 통하나 그 중에서도 예산이 배들이 떠나고 머무는 곳이 되었다.
 - ◇ 온양 : 아산, 온양 등 여러 마을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과 문학을 공부한 선비가 많이 나왔다.
 - ◇ 아산 : 본래부터 생선과 소금이 넉넉했는데, (공진)창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백성이 많이 모였고, 장사꾼들도 모여서 부유한 집이 많다.⁹⁾

- 1) 「이산과 연산은 산이 가까우나 땅이 기름지고, 은진 석성은 들에 위치했으나 땅이 메마르며 수재와 한재를 자주 당한다. 이 네 고을은 경춘촌과 통하여 한 들로 되었으며, 바다 조수가 강경을 지나 출입하므로, 들 가운데 여러 곳의 냇물과 골에 배가 통행하는 이익이 있다.」 「땅이 기름지고 산이 웅장하고 백성이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하다.」
- 2) 은진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쪽 들 가운데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다(이중환, 택리지)
- 3)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기호예학 중심지.
- 4) 공주는 1932년 도청 이전 전까지 조선시대 감영을 이어 도청이 있었다는 중심지 인식이 있음.
- 5) 오서산 : 홍주, 결성, 보령의 세 고을 경계에 우뚝 서 있다.
- 6) 가야산 앞뒤의 열 고을 -보령, 결성, 해미(가야산 서쪽), 태안, 서산, 면천, 당진(가야산 북쪽), 홍주, 덕산(가야산 동쪽), 예산
- 7) 유공포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서 소사하와 합치며 두 가닥 물이 만나는 사이가 아산. 영인산의 북쪽 바닷가에 창을 설치하고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여러 고을의 조세를 거두어 해마다 배에 실어 서울에 나르는 까닭으로 이 호수를 공세호라 부른다.
- 8)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은 학질과 염병이 많으며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과 원습(原隰)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란다.」 「내포에는 아산 공세호와 덕산 유공포가 수량이 많고 근원이 길다. 홍주 광천과 서산 성연은 비록 시냇물 항구이나 조수가 통하는 까닭에 장삿배가 머물러 화물을 싣고 부리는 곳이다.」(이중환, 택리지)

- 근대 인천, 서울로 유학 지식인 배출의 기반
- 서해문화권(비인, 남포, 서천, 한산, 임천, 홍산, 정산)
 - ◇ 비인, 남포 (성주산 서편) : 땅이 아주 기름지고 서쪽으로 큰 바다에 임해서 생선, 소금, 메벼를 거래하는 이익이 있다.
 - ◇ 서천, 한산, 임천(성주산 남쪽) : 모시로 얻는 이익이 전국의 최고
 - ◇ 홍산, 정산
- 일곱 고을은 풍속이 대략 같고 또 여러 대를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3) 청주목

청주목	
소속 군	천안, 옥천
소속 현	직산, 목천, 문의, 회인, 청안, 진천, 보은, 영동, 황간, 청산
현재(충남)	천안시

- 인문 지리적 특성 :
 - ◇ 천안 : 온양 · 목천 10리, 아산 15리로 근접 문화권. 교통의 중심지¹⁰⁾
 - 목천 마일령의 서쪽에 내포, 동쪽과 차령 이북에 천안, 직산, 평택, 아산, 신창, 온양, 예산 등 일곱 고을이 있어 풍속이 대략 같다.천안과 직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이다. 직산에서 평야지대를 이십 리쯤 가면 평야가 끝나면서 소사하(素沙河)이고, 소사하의 북쪽은 곧 경기도 남쪽의 경계이다.
- 역사 문화적 정체성 : 집중성(물길과 물길의 교차)와 환류성(천안의 온양, 아산을 잇는 경제적 연대성과 충청 좌도 내륙과의 연계)

4) 충주목

충주목	
소속 군	청풍, 단양, 괴산
소속 현	연풍, 음성, 영춘, 제천
현재(충남)	

3. ‘충남’의 역사 문화적 정신

1) 개방성과 창의성을 표출한 백제 정신[백제문화권]

- 백제는 웅진시대와 사비시대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 교류를 통해 개방성과 국제성을 띠었다.
 - 공주 무령왕릉,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천안 용원리 환두대도, 공주 송산리 고분 및 부여 능산리 고분 벽화
- 백제는 서해를 통한 해상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되 온화하고 세련된 창의적

9) 창이 있는 마을이 그리할 뿐만 아니라 영인산 맥이 두 갈래 물 사이에 그쳐서 기세와 맥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산의 전후와 좌우가 모두 이름난 마을이며 사대부의 집이 많다.

10) 전의, 청주로 이어지는 큰길, 공주 인제원과 이어지는 큰길이 있다. 『여지도서』 형승 “삼국의 중심으로 다섯 용이 구슬을 닦는 형세”

문화를 창조하였다.

- 서산 마애삼존불, 무령왕릉 출토 금관장식, 논산 화형은제관식
- 백제는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국의 위상을 차지하였다.
- 법륜사, 광륜사 목조미륵반가사유상, 오경박사(유교), 노리사치계(불교), 건축기술자(노반박사, 기와박사, 화가 등), 역박사, 의박사 파견

2) 포용성과 진취성을 아우르는 실학 정신 [내포·서해·공진창 문화권]

- 충남의 불교에서는 미륵신앙이 두드러지고, 현존하는 미륵불의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징이 있다. 현실의 고통과 애환을 미래 부처로 풀어내려는 포용성의 문화를 표출한다.
- 개태사(논산), 관촉사(논산), 대조사(부여)의 미륵불, 홍성, 천안, 논산의 마애불, 당진, 서산, 예산 등지의 매항비,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마곡사 5층 탑
- 바닷길을 통해 외부와의 문물수입이 유리하였고, 내륙수로와 연안해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였다. 운하를 건설하여 자연을 극복하려는 진취성도 있었다. 또한 해로를 통한 이주와 귀화도 있었다.
- 서해 포구발달(고려-서산 영풍창) 태안반도 운하 굴착 사업, 안흥정(태안, 서산), 13세기 남송으로부터 귀화한 정신보, 정인경 부자(서산)
- 충청도는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하는 토양이 되었다.
- 백이정(보령), 고려말 성리학을 국내에 보급. 이곡과 이색 부자 등도 서천 보령 일대에 기반을 둔 성리학자. 문헌서원(이색 제향, 서천)
- 충청도는 성리학이 주자학 일변도로 치달을 때 양명학과, 실학으로 사상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심지였다.
- 성호 이익의 집안이 충남 덕산에 옮겨 살면서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성호학통의 많은 실학자 형성, 이병휴 : 이익의 조카이자 어려서부터 이익의 곁에서 학문을 가장 깊게 전수 받은 인물. 그는 안정복과 가까이 교류하면서 동사강목의 편찬에도 도움을 줌. 또 그 문하에서 권철신, 권일신 등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양명학과 천주교 등 신사조에 조예가 깊었다. 이용휴 : 충청 덕산 태생. 경기도 안산의 성포리에 사는 이익과 뱃길로 왕래하며 연구에 몰두. 아들인 이가환과 외손 이승훈, 이학규 등에게 전수. 이가환 : 1801년 신유사옥으로 죽음. 홍대용 : 충청도 천안 태생
- 고증학의 선두인 추사 김정희(예산)는 북학파의 거장이자 박제가의 문하에서 수학

3) 안정성과 실천성을 추구한 예학 정신[계룡산·금강 문화권]

- 왜란과 호란이후 극심한 사회질서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조선 예학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호학파에 포함되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충청도의 학문적 특성은 예학으로서 특성화되었다.
- 김장생, 김집(논산), 송시열, 송준길(회덕), 이유태(공주), 윤선거, 윤순거, 윤원거, 윤증(논산), 유계(금산, 논산) 등 당대의 석학들이 활동한 주 무대가 충남.
- 또한 영남유학에 비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 이이의 기호학파(김장생- 김집-송시열-송준길), 우계학파(성혼-윤희-윤선거-윤증), 도산학풍(남인계열의 권득기-권시-권이진), 백호 윤희
- 유교의 도덕 교육인 충의정신이 위기에 바진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비와

의병을 배출하였다.-고경명, 조현의 금산전투.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자 왕을 따른 충청도 사림과 의병. 이밖에도 충남의 충절정신은 황산벌의 계백, 사육신 성삼문, 임진왜란의 이순신 등도 빼 수 없다.

- 금강을 따라 진강, 강경강, 백마강으로 연계되는 물줄기는 내륙수로를 통한 경제 동맥이었으며, 그 줄기를 따라 백제문화와 조선 성리학, 조선 예학이 성장하였고, 충절의 인물이 명멸하였다.

- 서천, 논산, 부여, 공주

4. 충청남도 종합계획권역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 비교

종합계획권역	세부지역	역사문화권역	비고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공진창 문화권	천안 아산
서해안권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내포문화권	서산, 태안, 보령, [홍성][예산][당진]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칠갑산문화권	청양
백제권	공주 부여 [논산]	백제문화권	공주, 부여
금강권	금산, 계룡	금강 계룡산 문화권	[서천], [논산], 계룡, 금산